

日本에 現存하는 韓國古版本에 대하여 : 陶活字를 中心으로

富山大 藤本幸夫

필자가 일본에 현존하는 한국고판본을 조사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되었다. 일본에는 중세시대의 교류, 임진왜란 때의 약탈, 宗家の 求講, 明治 이후의 구입 등에 의해서 수많은 善本이 존재한다. 그러나 충분히 정리된 도서관과 문고를 제외하고는 존재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지난번 교오토에서 열린 本學會에서 필자는 대마도에 있는 宗家文庫를 중심으로 記述했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는 동경대학 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본을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동경대학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대학이며, 부속도서관은 1877년에 발족했다. 明治초기에 市中에 유출된 한국관계 古書로는 白山, 黑水文庫 및 한국에서 옮겨온 「朝鮮王朝實錄」(五臺山本) 등의 귀중한 서적이 있었지만, 1923년 9월 1일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후 대학은 열심히 책수집에 노력했고, 그 결과 현재 한국본의 일대 집대성인 「阿川文庫」가 1924년 대학에 입수되었다. 「阿川文庫」는 阿川重郎氏가 수집한 한국본으로 總冊수는 약 5,000冊이라고 한다. 阿川氏는 원래 姓이 監見氏인데 阿川家の 양자가 되어 1897년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그 후 토목건축업 阿川組의 사원이 되어 서울~부산간의 철도부설공사에 종사했다. 「阿川文庫」는 그 때에 구입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阿川氏는 그 밖에도 한문서적과 茶器類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현재 散佚되어 있다.

「阿川文庫」에는 古刊本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거의가 18, 19세기의 刊行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木活字本이 많아 서지학적으로도 흥미깊은 대상이 되며 동시에 근세연구에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阿川文庫」 이외에 최근에 발견된 귀중서로는 庚午字本인 「歷瓜兵要」, 乙亥字本인 「兵政」 등이 있다.

한국에는 陶活字가 있고 그 인쇄물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종래에 陶活字 인쇄물이라고 불리워진 「玉纂」과 「經史集說」은 실제로는 지극히 조야한 木活字印本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三略直解」는 卷末에 「陶字契新刊」이라고 써어 있기 때문에 陶活字 인쇄물이라는 설이 있다. 金斗鍾 박사에 의하면 木活字本이라 한다. 「陶字契」라는 文字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최근 仙臺에 사는 笹氣氏가 宋畢昇의 膠泥活字와 한국의 陶活字에 관한 기록을 참조하여 陶活字를 만들어 실제로 인쇄한 것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임경순 譯)